

32장 - 만유의 주재

1. 만유의 주재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되신 주로다
 2.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주시네
 3.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 빛 수 많은 별 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 아멘.

304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 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월 21일(화) 기도 담당 : 해성광 집사

2020년 1월 20일(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고행석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32장
기도	김종근 집사
성경봉독	스가랴 1장 1~4, 16~17절
찬양	새벽찬양대
설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304장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스가랴 1장 1~4, 16~17절 >

1 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1월 20일(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주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이 아침 주를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 힘을 얻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로 메마른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견고히 의지하여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선한 유산을 다음세대에 물려주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비전을 따라 새문안 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복된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역사는 오직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루심을 믿사오니,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135주년이 되는 해 헌당을 목표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속히 헌당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더욱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선교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새문안의 모든 권속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저 북녘에 신음하며 주님을 찾는 성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사 어둠에 휩싸인 저 북한 땅에 구원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과 주 뜻 위해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